

## 어머니의 기질과 우울 그리고 양육태도와 자녀 성격과의 관계\*

김 명 숙<sup>†</sup>

한신대학교

오 현 숙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본 연구는 어머니의 기질과 우울이 양육태도를 매개로 자녀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전국 7개 지역의 123명의 남녀 초등학교생(남=60, 여=63)과 이들의 어머니가 연구대상으로서 기질 및 성격검사 성인용과 아동용, 부모의 수용거부통제척도,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통해 조사되었다. 연구결과로는 분석의 기초자료인 변인들 간 상관관계에서 어머니의 위험회피 기질은 자신의 우울과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인내력 기질과 우울은 유의하게 부적 상관이 있었다. 사회적민감성을 제외한 어머니의 모든 기질 특성에서 즉, 자극추구 기질은 부정적 양육태도인 적대감/공격성, 냉담/무시, 거부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위험회피 기질은 온정/애정과는 부적 상관을,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민감성을 제외한 어머니의 모든 기질 특성인 자극추구와 위험회피는 자녀의 성격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인내력은 정적으로 자녀의 성격과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태도 중 통제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유의하게, 즉 온정/애정과는 부적 그리고 나머지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사회적 민감성을 제외한 어머니의 모든 기질 특성인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은 자녀의 자율성과 연대감 성격과 정적인 상관을, 인내력 기질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율성 및 연대감 성격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는데 온정/애정의 태도와는 정적인 상관을 그리고 부정적 양육태도인 적대감/공격성, 냉담/무시, 거부 그리고 통제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다음, 어머니의 기질과 우울이 양육태도를 매개로 자녀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성격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어머니의 기질은 자녀 성격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 되었다.

주요어 : TCI, 어머니의 기질, 어머니의 우울, 양육태도, 자녀 성격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2014년 한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그 이후 재분석을 통하여 집필한 것임.

† 교신저자 : 김명숙, 한신대학교,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E-mail : heidinam@naver.com

아동기의 경험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걸쳐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기는 한 개인의 삶에서 정서적, 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자기 유능감 및 자기 효능감 등을 통한 자기 개념이 더욱 성장, 발달하는 초등학교(6, 7세~11, 12세)시기는 인성(personality)발달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기간이다. 이 때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성격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감하면 자녀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촉진된다고 하였으며(Belsky, 1985), Mussen(1974)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 허용적이면 자녀는 활동적, 독립적이고 다정하며 높은 창의성과 단호함을 보이고; 온정적이고 엄격하면 순종, 규칙 준수, 공손, 유순함을 보이며; 통제하면서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면 위축, 내적 갈등, 자기공격성의 극대화를 나타내고; 적대적이면서 허용적이면 공격적이고 조절불가능한 행동의 극대화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다수의 연구들이 부모가 적절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이 자녀 문제행동 발현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Morris, Silk, Steinberg, Sessa, Avenevoli & Essex, 2002; Rutter, 1990; Webster-Stratton & Herbert, 1994) 하였고, Hofstra, Van der Ende, & Verhulst(2000)는 아동기에 경험하게 되는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성인기의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가 체벌과 더불어 지나치게 엄격한 양육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자기방어를 위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도덕성과 관련된 성격발달의 문제가 제기(김숙자, 1989) 되기도 한다.

이렇게 아동의 성격발달을 위한 부모의 역할,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강조되는 가운데, 부모 중 특히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에 비해 큰 것으로 보고(이경희, 1996)되며 다양한 연구들이 아동의 성격발달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Shipman(1973, 1975, 1976)은 Head Start 종단 연구를 통해 어머니와 아동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유형을 관찰했고, 그 결과로 아동에게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의 정보처리 과정과 외부 세계 지각이 달라진다고 하였다(김근화, 2005에서 재인용). 유아의 경우를 살펴 본 최지현(2001)의 연구에서 유아는 통제적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 보다 온정적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 아래에서 자기 통제를 더 잘 한다고 보고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율적이며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가 도덕적 판단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타났다(오금희, 1986).

한편, 일련의 연구들은 아동의 성격발달에 관여하는 어머니 요인으로 양육태도 외에 어머니의 정서적 행동을 들고 있다. 박현진, 이주영, 문경주 및 권정혜(2010)는 어머니의 무관심한 양육행동에는 어머니의 부적 정서가 관여되어 있음을 제시했다. 어머니의 정서 중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와 함께 자녀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Dodge(1990)에 의하면, 우울한 어머니로 말미암아 자녀가 경험하는 손상의 범위는 아동정신병리 진단범주에 속하는 기분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에서부터 여러 적응상의 문제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울한 어머니는 정서적 행동이나 정서적 표현의 비율이 낮고 자녀에 대한 느린 반응을 보이며 말도 적게 하고(Downey & Coyne, 1990) 자녀에게 부정적이며 자녀와 정서적 거리를 유지한다(Field,

Healy, Goldstein & Guthertz, 1990). 강복화(2003)와 고성혜(1994)는 우울한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도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신체접촉에 있어서는 우울한 어머니와 비우울 어머니 모두 짜르기, 들어올렸다 내리기 등의 거친 신체접촉보다는 뽀뽀하기, 쓰다듬기 등의 양육적 신체접촉을 하지만 우울한 어머니는 비우울 어머니에 비해 양육적 신체접촉을 덜한다고 한다(곽금주, 김수정, 2004). 또한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선경, 1997), 특히 아동의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경, 김영희, 2003). 반면에 어머니의 우울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Miller, Cowan, Cowan, Hetherington & Clingempeel, 1993). Bettles(1988)와 Fendrich, Warner, & Weissman(1990)에 의하면 우울한 어머니는 비밀관적인 양육방식이나 강압적 통제방법, 처벌, 학대 등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취하고, 비우울한 어머니보다 더 부정적이며 비반응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아동의 문제행동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보이지만 종합하여 볼 때, 어머니의 우울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아동의 성격발달과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격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하였다. 어머니의 우울 증상은 그 원인이 출생 이전(태내기)부터의 문제인지, 심리적 취약성인지, 아니면 환경 자극인지에 따라 크게 소인성, 심인성, 반응성으로 나뉘는 여러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원인이 개인의 내부에 있느냐 아니면 외부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개인 내적 및 개인 외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인 원인으로 어머니의 기질을 중요 변인으로 보았다. 기질은 한 개인의 삶에 생애 초기부터 그 개인의 심리적 특징으로 나타나며, 일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이고 변함이 없는 경향성으로 간주된다. '무엇을 왜 하는가?'보다는 '어떻게 행동 하는가?'의 행동양식(장춘이, 2011)이며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성향(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으로 이해된다. 우울과 관련있는 기질적 특성으로서 낮은 자율성의 성격에 높은 위험회피 기질이 단극성 우울증과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Richer, Eisemann, 2002).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기질, 성격 및 우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험회피(김보경, 민병배, 2006; 황정미, 채규만, 2007), 자극추구, 사회적 민감성 그리고 인내력(황정미, 채규만, 2007) 기질이 우울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어머니의 기질이 직접적으로 자녀성격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양육태도와 아동 기질과의 상호작용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오현숙(2006)은 유아의 성격발달을 살펴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유아기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아동 중심으로 나타남을 밝혔다. Kochanska, Aksan,

& Joy(2007)는 아동의 두려움이라는 기질이 양육태도의 영향을 중재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미취학 아동의 자기통제와 같은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아동의 연령과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관계와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동의 자기통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온정, 일관성, 통제와 같은 양육태도와 함께 과도한 활동성과 같은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주란, 이소은, 2004).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기존의 연구들은 아동의 성격발달과 관련 있는 또는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탐색하였지만 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 성격발달의 관계(국성민, 2008; 김근화, 2005; 김윤수, 2003; 문경주, 오경자 2002; 임성택, 2007; 주정현, 2004), 기질과 양육태도의 관계(박현진, 이주영, 문경주, 권정혜, 2010; 오현숙, 2006; 유경, 김락형, 2012; 이주란, 이소은, 2004) 및 매개변인으로서 양육태도가 유아, 청소년 및 대학생의 성격 혹은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장춘이, 2011; 임경은, 2013; 하승수, 권석만,

2011) 등 변인들 간의 단편적 관계만을 살펴 보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바탕이 되는 부정적정서와 정서적 반응 양상인 기질을 포함하여 그 인과적 및 유기적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드문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 성격에 중재역할을 한다는 가설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곧, 그림 1의 연구모형은 아동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앞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어머니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성격에 중재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가설을 나타낸다.

## 연구방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160명의 어머니를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 실시하였다. 전체 160명 중 연구대상 선정기준에 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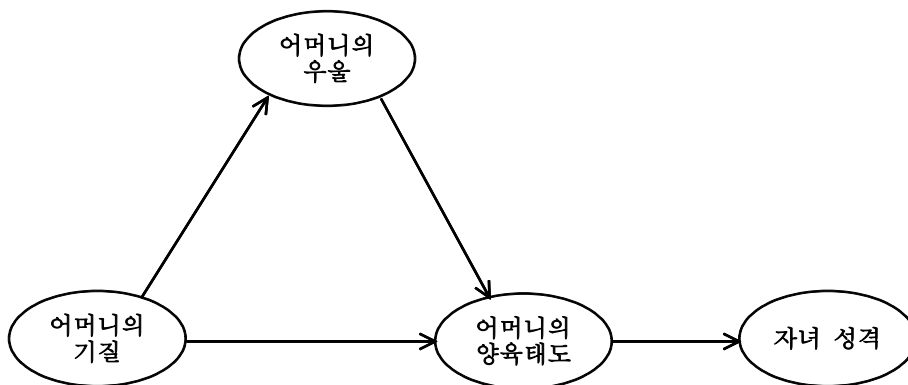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기질과 우울 그리고 양육태도와 자녀성격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와 초등학교 자녀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N=123)

변인	구분	표본수(명)	구성비율(%)
연령	20대	1	.8
	30대	71	57.7
	40대	49	39.8
	50대	2	1.6
학력	중졸	2	1.6
	고졸	34	27.6
	대졸	77	62.6
	대학원졸	10	8.1
소득	1500만원 미만	7	5.7
	1500-2500만원	3	2.4
	2500-3500만원	16	13.0
	3500-4500만원	24	19.5
	4500-5500만원	27	22.0
	5500만원 이상	46	37.4
자녀수	1명	32	26.0
	2명	75	61.0
	3명	15	12.2
	4명	1	.8
자녀학년	1학년	28	22.8
	2학년	21	17.1
	3학년	19	15.4
	4학년	36	29.3
	5학년	4	3.3
	6학년	15	12.2
자녀성별	남	60	48.8
	여	63	51.2
가족사	친부모가정	114	92.7
	이혼 및 별거 가정	7	5.7
	기타 편모 가정	1	.8
	재혼가정	1	.8
배우자 우울진단	있음	6	4.9
	없음	117	95.1
합계		123	100.0

지 않거나 검사문항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12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1에서 제시된 응답자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변인에서는 4학년이 29.3%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적으로 5학년을 제외하고 고른 분포를 보였다. 성별 또한 거의 비슷했으며 결혼가정이 아닌 친부모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어머니 변인에서는 주로 한 명 혹은 두 명의 자녀를 두고 고등교육을 받은 고졸 이상의 30대 혹은 40대로, 경제적 수준은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적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응답자 특성에 의거해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상 거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연구 절차

본 연구의 검사실시는 직접 연구대상인 어머니들을 방문해서 연구의 취지와 설문 방법 및 연구참여의 자의성을 상세히 설명한 뒤 검사를 실시, 완성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거나 연구방법 및 목적과 절차에 대해 연구자를 통해 훈련받은 연구원이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문에 대한 취지 및 절차 등을 충분히 안내한 후 작성하도록 했다. 설문지는 직접전달 혹은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검사 시간이 약 60분 정도 소요되었기에 연구대상자들이 설명을 들은 후 질문지를 완성해서 그 자리에서 제출하거나 귀가 후 질문지를 작성한 뒤 우편 혹은 인편으로 전달하는 조사방법으로 수집하였다. 검사는 각 지역의 주민센터나 교회 혹은 응답자들의 집에서 실시되었으며, 검사문항이 누락되거나 연구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는 제외하였다.

#### 측정도구

#####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TCI-RS: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evised-Short)

어머니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Goth, Cloninger, Schmeck(Goth, Cloninger, Schmeck, 2003b)에 의해 'TCI-R'의 단축형으로 개발된 'TCI-RS'를 사용했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에서 재인용). TCI-RS는 총 140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2007)에 의해 2007년 표준화 작업을 거쳤는데, 기질 차원과 성격차원으로 구성척도가 나뉘어져 있다. 기질차원은 다시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으로 세분화 된다. 자극추구는 예상되는 보상단서나 새로운 자극에 이끌리고 촉진되는 행동경향성의 개인차이다. 위험회피는 잠재적 위험과 혐오스러운 자극 앞에서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의 억제 혹은 위축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사회적 민감성은 타인의 정서와 사회적 보상신호를 세심하게 파악한 뒤 나타내 보이는 정서 및 행동 반응의 개인차이다. 인내력은 현재 보상이 없거나 비주기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미래의 보상을 예상하며, 일정한 시간동안 한 번 보상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격차원은 자율성 및 연대감 그리고 자기초월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율성은 자율적인 존재로 자신을 여기며 이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자기개념을, 연대감은 자신과 인류 혹은 사회로 규정될 수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사회나 인류의 통합된 한 부분으로 동일시하고

이해하는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자기개념을, 자기초월은 개인이 자신을 ‘우주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의 자기개념을 나타낸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격차원은 배제하고 기질차원만 자료로 사용하였다. 전체 신뢰도는  $\alpha = .79$ 로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기질 및 성격검사-아동용(JTCI 7-11: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7-11)**

자녀의 성격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oth 등(2003b)이 개발한 ‘JTCI 7-11’을 사용하였는데(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에서 재인용), 총 86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Likert) 방식으로 채점되며 아동의 양육자가 아동에 대해 가장 잘 설명된 문항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국내에서는 오현숙, 민병배(2007)에 의해 2007년 표준화 작업을 거쳐 출판되었다. 기질과 성격의 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질의 하위척도로는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이 포함되어 있고, 성격의 하위척도로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이 있다. 모든 하위척도의 척도명은 성인용과 동일하며 해석도 그 연장선상에서 가능하지만 자기초월 척도만은 다른 하위척도명을 사용한다. 이는 자기초월 영역이 청소년과 성인처럼 아직은 발달적으로 분화되지 않은 아동의 상태를 감안한 것이다. 그래서 아동의 발달적 특징에 맞추어 자기초월은 환상(Fantasy)과 영성(Spirituality)으로 나누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차원을 배제하고 인성의 성숙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성격차원 중에서도 자율성과 연대감을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8로

양호하였다.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

‘BDI(한국판 Beck 우울척도)’는 Beck(1961) 등에 의해 우울증상을 측정하고자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그리고 생리적 영역을 모두 포함해서 총 21개 문항으로 개발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영(1991)에 의해 번안된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0에서 3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4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울증상의 정도를 기술한 네 문장 중 지난 1주간 피검사 상태를 잘 설명해주는 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BDI를 이영호와 송종영(1991)의 독립된 3요인구조 모형(조용래, 김정호, 박상학, 김학렬, 김상훈, 표경식, 2002)으로 사용했으며, 우울증상 및 신체증상, 실패 및 자신에 대한 불안, 자기 비난과 죄책감이 포함된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9로 양호하였다.

**양육태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Control: Child version:**

**PARQ/Control)**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ohner, Kean, & Cournoyer(Rohner, Kean, & Cournoyer, 1991)의 부모 수용-거부 이론을 바탕으로 Kim과 Rohner(2002)가 개발한 부모의 수용-거부와 통제척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Control: Child version: PARQ/Control)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것은 Kim과 동료들이 한국어로 번역한 후 (Kim & Rohner, 2002), Nahm(2006)이 이를 역번

역한 것이다. 총 29개의 문항으로 부모의 온정/애정, 적대감/공격성, 냉담/무시, 일관적인 거부, 통제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방식으로 채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보다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자녀에게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며, 부모의 수용-거부에 대한 점수범위는 0~72점이다. 다만, 온정/애정은 다른 거부적인 양육태도와는 달리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뜻한다. 통제요인에 대한 점수범위는 0~15점이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는 .86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해 첫째,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개념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경로분석의 바탕이 되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통계 프로그램인 AMOS 18.0을 활용하였다.

### 결 과

어머니의 기질, 우울, 양육태도 및 자녀 성격의 상관

어머니의 기질과 우울이 양육태도를 매개로 자녀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각 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

차와 상관관계가 표 2와 3에 제시되었다.

표 3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위험회피 기질은 자신의 우울과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인내력 기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극추구 기질과 사회적민감성 기질은 어머니의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사회적민감성을 제외한 모든 어머니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전반적인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자극추구 기질은 부정적 양육태도인 적대감/공격성, 냉담/무시, 거부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위험회피 기질은 온정/애정과는 부적으로 상관을 보였으며, 나머지 모든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정적으로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민감성을 제외한 어머니의 모든 기질 특성은 자녀의 자율성과 연대감 성격 특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는데, 자극추구와 위험회피는 부적으로 상관이 있었고, 인내력은 정적으로 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태도 중 통제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유의하게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온정/애정과는 부적으로 상관이 있었고, 나머지 부정적 양육태도인 적대감/공격성, 냉담/무시 및 거부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모든 하위척도에서 자녀의 자율성 및 연대감 성격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즉, 온정/애정의 태도와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부정적 양육태도인 즉, 적대감/공격성, 냉담/무시, 거부 그리고 통제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의 기질과 우울 그리고 양육태도와 자녀성격과의 관계

그림 2는 본 연구의 가설인 어머니의 양육



표 2.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N=123)

변인	하위척도	M	SD
어머니의 우울	우울증상과 신체증상	.38	.33
	실패 및 자신에 대한 불안	.33	.42
	자기비난과 죄책감	.42	.44
어머니의 양육태도	온정/애정	1.63	.46
	적대감/공격성	.62	.44
	냉담무시	.57	.41
	일관적인 거부	.37	.43
	통제	1.56	.51
어머니의 기질	자극추구	1.45	.43
	위협회피	1.85	.58
	사회적 민감성	2.24	.45
	인내력	2.02	.52
자녀의 성격	자율성	2.52	.67
	연대감	2.35	.66

표 3. 어머니의 기질, 우울, 양육태도 및 자녀 성격과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00													
2	.71**	1.00												
3	.66**	.70**	1.00											
4	-.26**	-.23*	-.24**	1.00										
5	.28**	.23**	.22*	-.44**	1.00									
6	.38**	.35**	.37**	-.52**	.46**	1.00								
7	.25**	.32**	.31**	-.53**	.49**	.55**	1.00							
8	.08	.11	.16	-.14	.44**	.23*	.22*	1.00						
9	.11	.10	.09	.01	.25**	.19*	.22*	.09	1.00					
10	.47**	.63**	.57**	-.38**	.36**	.36**	.34**	.31**	-.12	1.00				
11	-.03	.05	.01	.09	-.03	.12	.08	.04	.09	-.14	1.00			
12	-.19*	-.33**	-.25**	.43**	-.16	-.24**	-.17	-.04	.32**	-.53**	.21*	1.00		
13	-.19*	-.29**	-.24**	.44**	-.42**	-.28**	-.38**	-.26**	-.10	-.45**	.06	.29**	1.00	
14	-.19*	-.25**	-.16	.45**	-.44**	-.34**	-.48**	-.21*	-.20*	-.31**	.01	.21*	.65**	1.00

\*  $p < .05$ , \*\*  $p < .01$

어머니의 우울: 1. 우울/신체증상, 2. 실패/자신에 대한 불안, 3. 자기비난과 죄책감  
 어머니의 양육태도: 4. 온정/애정, 5. 적대감/공격성, 6. 냉담/무시, 7. 일관적인 거부, 8. 통제  
 어머니의 기질: 9. 자극추구, 10. 위협회피, 11. 사회적 민감성, 12. 인내력  
 자녀의 성격: 13. 자율성, 14. 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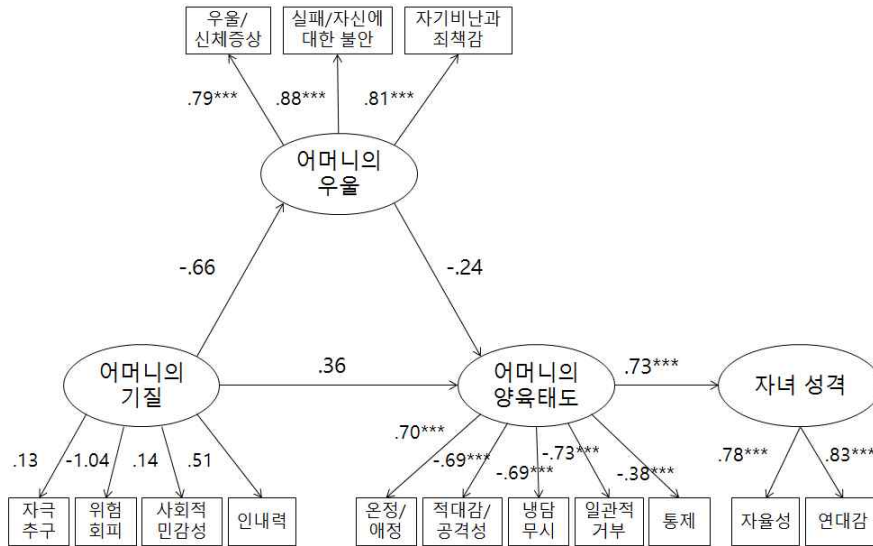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의 기질과 우울 그리고 양육태도와 자녀성격과의 관계에 관한 구조 경로분석

태도가 자녀성격에 중재역할을 한다는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를 나타낸다. 연구모형에 나타난 모수치들의 분석은 표 4에 그리고 경로모델에 대한 효과분해표는 표 5에 제시되었다. 그림 2와 표 4와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기질이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path coefficient)는  $P = -.66$ 을 나타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되지 못했다.

그림이 제시하듯이 어머니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 또한  $P = .36$ 을 나타내면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5가 나타내듯이 어머니의 기질이 우울 및 양육태도를 통한 간접 경로(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우울에서 양육태도로 가는 경로의 경우에도 경로계수  $P = -.24$ ( $p = .10$ )을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유의수준  $.1$ 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부적

인 영향력에 대한 경향성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 성격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경로계수  $P = .73$ 을 나타내면서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어머니의 기질과 우울 그리고 양육태도와 자녀성격과의 관계에 관한 경로모델의 모델 부합도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모델의 적합한 정도를 나타내는 적합도 지수 GFI와 TLI는 높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8$  이상으로 높으며(박이정, 2014), 기준치(성태제, 2007; 홍세희, 2013)인  $.9$ 에 근접하였고, IFI와 CFI는 기준치에 도달함으로써 본 연구모형은 비교적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델이 부합되지 않는 정도를 검증하는 RMSEA(root mean square residual)를 통해서도 기준치인  $.10$ 을 넘지 않음으로써 좋은 모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표 4. 어머니의 기질과 우울 그리고 양육태도와 자녀성격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에 대한 최대우도 모수치 추정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u>직접효과</u>					
어머니의 기질 → 어머니의 우울	-3.10	2.16	-1.44	0.15	-0.66
어머니의 우울 → 양육태도	-0.30	0.18	-1.65	0.10	-0.24
어머니의 기질 → 양육태도	2.09	1.60	1.30	0.19	0.36
양육태도 → 자녀 성격	1.20	0.22	5.53	***	0.73
<u>분산</u>					
어머니의 우울 → 우울/신체증상	1.00				0.79
어머니의 우울 → 실패/자신에 대한 불안	1.45	0.14	10.23	***	0.88
어머니의 우울 → 자기비난과 죄책감	1.38	0.15	9.47	***	0.81
어머니의 기질 → 자극추구	1.00				0.13
어머니의 기질 → 위험회피	-11.05	7.77	-1.42	0.16	-1.04
어머니의 기질 → 사회적 민감성	1.15	1.06	1.09	0.28	0.14
어머니의 기질 → 인내력	4.80	3.36	1.43	0.15	0.51
양육태도 → 온정/애정	1.00				0.70
양육태도 → 적대감/공격성	-0.95	0.14	-6.57	***	-0.69
양육태도 → 냉담/무시	-0.89	0.14	-6.57	***	-0.69
양육태도 → 일관적인 거부	-0.98	0.14	-6.94	***	-0.73
양육태도 → 통제	-0.61	0.16	-3.79	***	-0.38
자녀성격 → 자율성	1.00				0.78
자녀성격 → 연대감	1.05	0.15	6.98	***	0.83
<u>분산</u>					
기질	0.00	0.00	0.72	0.47	
E(우울)	0.04	0.01	4.19	***	
E(양육태도)	0.07	0.02	3.91	***	
E(자녀의 성격)	0.13	0.04	3.53	***	

\*\*  $p < .01$ , \*\*\*  $p < .001$

표 5. 어머니의 기질과 우울 그리고 양육태도와 자녀성격과의 관계에 대한 구조 경로분석 효과 분해표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어머니의 기질 → 어머니의 우울	-3.10	-3.10	-	-.66	-.66	-
어머니의 우울 → 양육태도	-.30	-.30	-	-.24	-.24	-
어머니의 기질 → 양육태도	3.01	2.09	.92	.52	.36	.16
양육태도 → 자녀 성격	1.20	1.20***	-	.73	.73***	-
어머니의 기질 → 자녀 성격	3.62	-	3.62**	.38	-	.38**
어머니의 우울 → 자녀 성격	-.36	-	-.36	-.18	-	-.18

\*\*  $p < .01$ , \*\*\*  $p < .001$

표 6. 어머니의 기질과 우울 그리고 양육태도와 자녀성격과의 관계에 관한 경로모델에 대한 최대우도 모델 부합도 지수

구분	$\chi^2$	df	GFI	I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140.83	73	.86	.90	.87	.90	.09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기질, 우울 및 양육태도와 자녀 성격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어머니의 기질과 우울이 양육태도의 중재효과를 통해 자녀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경로 모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판 Beck 우울척도(이영호, 송종용, 1991)를 사용하였고, 어머니의 기질은 기질 및 성격검사, TCI-RS(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를 통하여, 자녀의 성격은 TCI의 아동용인 JTCI(오현숙, 민병배, 2007)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수용-거부/통제척도, PARQ/Control(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Control, Nahm,

2006)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의 기초자료인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의 기질 중 위험회피 기질은 자신의 우울과 유의하게 정적인 그리고 인내력 기질은 유의하게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어머니의 위험회피가 높을수록 그리고 인내력이 적을수록 더 우울함을 의미한다. 곧 위험회피 성향이 커서 근심, 걱정이 많고 미리 걱정하며 부정적 사고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고 신경질적이며 쉽게 지치고 쉽게 피곤해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인내력 성향이 적어서 부지런하지 못하고 잘 참고 견디지 못하는 어머니 일수록 우울 증상과 더 관련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 연구결과는 낮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높은 위험회피 기

질이 단극성 우울증과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 (Richer, Eisemann, 2002)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기질과 우울증의 관련성을 연구한 최근의 국내 연구결과들이 위협회피(김보경, 민병배, 2006; 황정미, 채규만, 2007)와 자극추구,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황정미, 채규만, 2007)이 우울과 관련 있음을 보고한 것에 상응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태도 중 통제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즉 온정/애정과는 부적인 상관이었으며 나머지 모든 부정적 양육태도인 적대감/공격성, 냉담/무시, 거부와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증을 중요 변인으로 다룬 이유는 우울한 어머니가 어머니의 우울로 말미암아 부정적 양육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성격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때문이었다. 본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둔감하고 따뜻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거칠고 거부적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울한 어머니는 정서적 행동과 정서적 표현이 적고(Downey & Coyne, 1990) 자녀에게 부정적이며 정서적 거리를 유지(Field, Healy, Goldstein & Guthertz, 1990) 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Bertes(1988)와 Fendrich, Warner, & Weissman (1990)은 우울한 어머니는 비일관적인 양육방식이나 강압적 통제방법, 처벌, 학대 등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취하고, 더 부정적이며 비반응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이것이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는데, 이는 우울과 양육태도와의 관련성 뿐만이 아니라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결과라 할 수 있는 다음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의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모든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율성 및 연대감 성격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는데 온정/애정의 태도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모든 부정적 양육태도, 즉 적대감/공격성, 냉담/무시, 거부 그리고 통제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총 5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온정/애정, 적대감/공격성, 냉담/무시, 거부 및 통제의 모든 척도가 예외없이 자녀의 자율성 및 연대감의 모든 성격적 발달지표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인 온정/애정은 자녀의 성격 차원에 긍정적 관계를 나타내며 부정적인 양육태도 또한 비례하여 성격에 부정적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최지현, 2001; Morris, Silk, Steinberg, Sessa, Avenevoli & Essex, 2002; Rutter, 1990; Webster-Stratton & Herbert, 1994)을 지지하는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리고 동시에 우울을 매개로 간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성격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기질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이 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기질이 우울 및 양육태도를 매개로 자녀의 성격에 유의하게 간접효과를 미침이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우울에서 양육태도로 가는 경로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되지 못하였으나 유의수준 .1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부적인 영향력에 대한 경향성은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24(p = .10)$ ). 이는 어머니의 우울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육태도의 역할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인 우울을 강화하기보다 감소시킴으로서 자녀의 성격발달에 긍정적인 중재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주가정인 어머니의 우울한 정서 또는 까다로운 기질이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보다 어머니가 어떤 양육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부정적 정서가 감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우울한 어머니라도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보인다면 자녀의 성격발달을 저해하지 않고 바람직한 성격발달을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요한 가설은 제한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기질은 자녀 성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양육태도와 아동 기질과의 상호작용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오현숙, 2006; 이주란, 이소은, 2004; Kochanska, Aksan, & Joy, 2007)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가설인 어머니의 기질과 우울이 양육태도를 중재로 자녀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모델은 모델이 부합되지 않는 정도를 평가한 RMSEA (root mean square residual)와 IFI 및 CFI가 기준치에 부합하면서 비교적 좋은 모델로 나타났다. 그 밖의 2개의 다른 지표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추정모수치의 수에 비해서 표본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가설검증력을 다소 떨어뜨렸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모수치 수에 맞게 표본크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델의 의미는 간명성에 있지만 모델이 너무 간명해지면 모델의 설명력과 모델 부합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높은 가설검증력을 위해 모델의 간명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모델 부합도를 높이는 방식의 보다 정교한 모델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까다로운 기질 또는 부정적 기질인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성격발달에 긍정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것을 밝혔다는데 본 연구 결과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는 아동의 성격발달을 돕기 위해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교육 또는 심리치료적 차원에서 활용하는데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연구결과와 해석과 함께 논의된 연구의 제한점을 요약하면 첫째, 가설검증력과 관련하여 연구의 표본크기가 비교적 작았다는 것, 둘째, 가설모델이 모델간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모델부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추가하여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차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이 극복됨으로서 본 연구결과들이 추후연구를 통하여 계속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복화 (2003).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성혜 (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곽금주, 김수정 (2004). 어머니의 내적 변인에 따른 영아와의 신체접촉 유형간 비교: 우울, 태도, 양육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18.
- 국성민 (2008). 부모의 양육태도 및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근화 (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보경, 민경배 (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과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21-236.
- 김숙자 (1989). 부모참여 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윤수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영유아 발달수준의 차이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기질 및 성격검사 매뉴얼. 서울: 마음사랑.
- 박이정 (2014). AMOS, LISREL, R을 이용한 구조방정식의 실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현진, 이주영, 문경주, 권정혜 (2010).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25-44.
- 성태제 (2007).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기술통계에서 구조 방정식모형까지. 학지사.
- 오금희 (1986).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오현숙 (2006). 유아의 기질 및 성격, 어머니의 만족도와 양육행동의 관계: 유아의 자율성과 연대감발달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211-226.
- 유 경, 김락형(2012).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과 양육태도 관계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대한한방소아과학회, 26(4), 38-43.
- 이경희 (1995).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유아의 기질, 가정양육환경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선경 (1997).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 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이주란, 이소은 (2004).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따른 유아의 자기통제력. 생활과학연구논총, 8(1), 93-115.
- 임정은 (2013). 청소년의 기질과 성격강점과의 관계: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덕성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성택 (2007).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창의적 성격 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교육학회지: 아동교육, 16(2), 159-170.
- 장춘이 (2011). 어머니 기질과 유아기 경험이 유아의 기질 및 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 니 양육태도 매개효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미경, 김영희 (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 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조용래, 김정호, 박상학, 김학렬, 김상훈, 표경식 (2002). 한국판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의 요인 구조: 임상표본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47-258.
- 주정현 (2004).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지현 (200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통제와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10, 133-146
- 하승수, 권석만 (2011). 기질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성격강점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1), 263-284.
- 홍세희 (2013).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 이론과 적용. 에스엔엠 리서치 그룹.
- 황정미, 채규만 (2007). 기질과 성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969-982.
- Belsky, J (1985).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ttes, B. A (1988). Maternal depression and motherese: Temporal and intonational features. *Child development*, 59, 1089-1096.
- Dodge, K. A (1990).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6, 3-6.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Field, T., Healy, B., Goldstein, S., & Guthertz, M (1990). Behavior-state matching and synchron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f nondepressed vs. depressed dyad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14.
- Fendrich, M., Warner, V. & Weissman, M. M (1990). Family risk factors, parental depression, and psychopathology in offsp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6, 40-50.
- Hofstra, M. B.,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0). Continuity and change of psychopathology from childhood into adulthood: A 14-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psychiatry*, 39, 850-858.
- Kim, K. & Rohner, R (2002). Parental warmth, control and involvement in schooling: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2), 127-140.
- Kochanska, G., Aksan, N., & Joy, M. E (2007). Children's fearfulness as a moderator of parenting in early socialization: Two longitudinal stud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3, 222-237.
- Miller, N. B., Cowan, P. A., Cowan, C. P., Hetherington, E. M. & Clingempeel, W. G (1993). Externalizing in preschoolers and early adolescents: A cross-study replication of a family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9, 3-18.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Sessa, F. M., Avenevoli, S. & Essex, M. J (2002).



- Temperamental vulnerability and negative parenting as interacting predic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2), 461-471.
- Mussen, P. H (1974).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chil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Nahm, E. Y. (2006).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Kore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its relationship to parent-child interac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Doctoral thesis
- Richer, J., & Eisemann, M (2002). Self-directedness as a cognitive feature in depressive pati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1327-1337.
- Rohner, R. P., Kean, K. J., & Cournoyer, D. E (1991). Effects of corporal punishment, perceived caretaker warmth, and cultural beliefs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in St. kitts, West Ind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81-693.
- Rutter, M (1990). Commentary: Some focus and process considerations regarding effects of parental depression o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0-67.
- Shipman, K., Edwards, A., Brown, A., Swisher L., & Jennings, E (2005). Managing emotion in a maltreating context: A pilot study examining chil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9, 1015-1029.
- Webster-Stratton, C. & Herbert, M (1994). *Troubled families-problem children: working with parents: a collaborative proces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1차원고접수 : 2015. 07. 26.  
심사통과접수 : 2015. 11. 28.  
최종원고접수 : 2015. 12. 15.

## The Relation among Mother's Temperament, Depression, Parenting attitude and Child's character

Kim, Myeong-Sook

Hanshin University

Oh, Hyun-Sook

Dept. of Psychology and Childcare, HanShi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mother's temperament and depression on a child's character development, which is mediated by parenting attitude. One hundred and twenty three elementary students (boys=60, girls=63) and their mothers in seven different regions in Korea filled out questionnaires including TCI-RS, JTCI 7-11, PARQ/Control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Control), and 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 Mother's Harm Avoidance (HA) temperament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but Persistence (P) temperament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mong mother's temperament traits except Reward Dependence (RD), Novelty Seeking (NS) temperament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ggression/hostility, indifference/negligence, and undifferentiated rejection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 HA temperament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warmth/affection. It also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other negative parenting attitude. Mothers' temperament, NS and HA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child's character, and P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t. In terms of parenting attitude except for control, mother's depressi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warmth/affection, and it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other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mong mother's temperament traits except for RD, NS and HA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hild's Self-Directedness (SD) and Cooperativeness (C). In addition, P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D and C of a child's character. Mother's Parenting Attitude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hild's SD and C character. It also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warmth/affection attitude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every negative parenting attitude (i.e., aggression/hostility, indifference/negligence and control). In short, Mother's Temperament and Depression mediated by parenting attitude affects child's character. In addition, Mother's Parenting Attitude had a direct effect on child's character significantly, and mother's tempera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s character indirect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TCI, mother's temperament,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attitude, child's character